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농촌사회교육의 개선방안

김민정

(경기도 양주군 농업기술센터)

A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Rural Lifelong education in ACT

Kim, Min-Jung

Agricultural Technology Cneter of Yangju., Gyeonggi 482-822, Korea

적 요

농촌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농촌사회교육은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존의 목표아래, 농업기술 교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인의 개개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은 소외시 되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기술교육에서 벗어나 농촌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촌사회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내용과 과정에 따라 현재보다 실습교육의 비율을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평생교육적 기회의 제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업인의 교육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한 단계별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와 같이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기존의 학교교육과 같은 일정한 기간에 습득한 지식과 정보로는 올바른 사회생활과 삶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은 평생을 거쳐 지속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즉,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사회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사회교육법과 그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사회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의 사회교

육은 비록 명칭은 달리 할지라도, 일정하의 농촌계몽 및 농민교육을 비롯하여 1950년대 이후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농촌지도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현재의 농촌은 농업인력의 부족, 부녀화 및 고령화의 문제,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등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사회,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의 모든 면에서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 이는 농촌을 이전과 달리 식량공급의 전진기지라는 한가지의 역할보다는 전체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체로 인정하고, 종합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농업소득 향상 정책과 함께 농가 부채의 해결, 생활기초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정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농업생산

성 향상이라는 기존의 목표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농촌사회교육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은 농업기술 교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농업인의 개개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은 소외시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육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사회의 변화를 거의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편적인 기술교육에서 벗어나 농촌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촌사회교육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와 같이 21세기 역시 빠르게 변화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적 농업인을 양성할 수 있는 정규교육과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평생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사회교육의 실태분석과 함께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교육내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촌사회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특히, 문화와 여가활동에 필요한 교육내용을 파악하여 농촌사회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사회교육의 개념을 고찰한다.

둘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촌사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셋째,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도를 조사·분석한다.

넷째, 이를 통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는 농촌사회교육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농촌사회교육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농촌사회교육의 개념

농촌사회교육은 농촌사회에서는 사회교육 형태의 교육활동이 많았으며 흔히, 농촌교육 농민교육 등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교육이 강조되고 그 이론이 정립되면서부터 농촌사회에서 시행되는 각종의 비형식교육을 농촌사회교육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농촌사회교육은 농촌주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농촌발전과 농업발전을 도모하는 사회교육을 의미한다. 그 주요 유형은 사회교육에서와 같이 문맹교육영농 및 농업직업교육, 농외소득 증대교육, 교양과 시민교육, 여가선용 교육, 가정교육, 지역개선교육 등 다양하다(강기주, 1994). 이러한 농촌사회교육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과 각도의 농민교육활동, 가나안 농군학교와 같은 민간단체의 농촌사회교육, 농업기술자 연합회, 새마을 영농기술자 연합회 등과 같은 농민 조직체에 의한 교육과 훈련사업, 대학과 농업협동조합의 농촌교육, 종교단체의 농촌주민 교육 등이 있다(윤 욱, 1990).

이와 같이 다양하게 농촌사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사회교육현행 사회교육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농촌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을 구체적으로 지칭하고 있지 않다. 단지 내용상으로 사회교육의 한 영역으로서 농촌에서의 사회교육을 농촌사회교육이라는 용어로 규정할 수 있다(최만호 외, 1991). 따라서 사회교육, 농업교육, 농촌지도 등의 세 가지 시각과 개념 및 소외집단으로서의 농민의 의미가 모두 농촌사회교육의 개념속에 함축된 것으로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종만(1998)은 농촌사회교육의 성격에 관하여 논하면서, 농촌사회교육을 농민들이 스스로 문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해결방안까지도 생각하게 하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혁을 위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하여, 농업인 스스로의 자발성과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농촌사회교육의 최종적 목표는 농촌·농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타율적이 아닌 스스로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하고자하는 것이 농촌사회교육 목표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최민호(1990)은 농촌사회교육을 좀더 구체적으로 “농촌주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복한 가정과 건전한 시민 그리고 만족하는 직업인의 한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인격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계획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농촌사회교육은 농업인 뿐 아니라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비 형식적인 교육적 활동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직업인으로서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인격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모든 계획적인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을 최종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순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제수준의 향상과 같은 물질적 풍요를 위한 교육 뿐 아니라 정신적 풍요와 가치수준 및 도덕성 함양을 통하여 보다 높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정한 농촌사회교육으로 볼 수 있다.

2. 농촌사회교육의 과제

이러한 농촌사회교육에 필요성에 대하여 벤더(Bender, R.E)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강기주, 1994:재인용).

첫째, 현대사회는 새로운 지식이 풍부하게 개발되고 있어서 지식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둘째, 획기적인 사회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셋째, 사회분화와 함께 농업이 전문화되고 계속 보완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농촌인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농촌사회교육은 사회전반의 변화 뿐 아니라 농촌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학교교육 이외의 사회교육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회에 적응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사회교육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사회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과제 역시 농촌사회의 변화와 많은 관련을 갖게 될 것이다. 정지웅(1974)은 농촌개발에 필요한 인간자원의 개발과 동원은 정규교육에만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일정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양적인 확대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으며, 농촌개발의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교육, 또는 훈련계획의 도입과 운영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농촌개발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농촌사회교육이 다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박태우(1982)는 근대사회에 적절하지 못하고 또 아직도 남아 있는 숙명주의적 보수주의적·권위주의적·정서주의적 가치관을 현대사회의 구조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것이며, 농촌주민의 경제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생활을 합리화하며 필요한 농촌사회가 되도록 농촌주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규환(1982)은 ① 직업기술에 관한 지식 ② 가정생활에 관한 지식 ③ 일반 교양에 관한 지식 ④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지식, 스포츠와 오락에 관한 요구 등 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농촌사회교육의 과제는 학자들에 따라 여러 가지로 열거할 수 있겠으나 그것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강기주, 1994).

첫째, 농업생산기술의 개선교육이다. 여기에는 ① 토양관리와 시비방법의 개선 ② 병충해 방제 ③ 작물, 채소 과수 생산기술의 개선 ④ 가축사육 기술의 향상 ⑤ 농용기계 조작기술의 습득 ⑥ 품종 개량 등이 속한다.

둘째, 자연자원의 보존교육이다. 여기에는 ① 토양 유실의 방지 ② 지력 유지 ③ 관개배수와 수자원의 보존 ④ 황폐지의 생산적 이용 등이다.

셋째, 농업경영의 합리화교육이다.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① 생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② 경영조직의 합리화 시장 가격 변동에 적응한 농업 경영 ③ 농산물 유통과정의 합리화 등이다.

넷째, 가정생활의 개선교육이다. 이를 위하여는 ① 건전한 가계 지출 계획 ② 의식주 생활의 합리화 ③ 가족의 보건 위생 관리의 철저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인간관계의 개선교육이다. 이는 ①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관계개선 ②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화의 촉진, ③ 부락의 협동 조직체의 건전한 운영과 참여 ④ 농촌의 미풍양속의 유지·선양 ⑤ 건전한 오락·휴식 여가 생활 ⑥ 상부상조정신의 유지 계발 ⑥ 자립정신 근로정신의 함양 등이다.

여섯째, 여가 및 문화생활 개선교육이다. ① 배움을 통한 자아실현 ② 취미와 특기 개발 ③ 교양과 인격형성 ④ 시민생활 ⑤ 학위 취득 과정 ⑤ 전산, 컴퓨터 등이다. 특히, 여가 및 문화생활 개선교육은 삶의 질의 균형적 향상과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들이다.

III.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농촌사회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농촌사회교육의 현황

2001년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농촌사회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영농기술교육으로 농업의 개방화·세계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된 신기술의 보급이나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술 습득 및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는 농업기계교육으로 영농활동에서 농업인력을 부족을 해결하고 농업의 기계화를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각종 농기계의 기능 및 작동방법의 습득을 통하여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는 생활개선 및 청소년과정으로 농촌여성과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 및 향상과 농업인 후계자로 육성될 수 있는 농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영농기술교육

영농기술교육은 12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 별로 1일에서 4일까지 교육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실시기관에 있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해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은 4개 정도로 전체 과정 중 1/3을 차지하고 있다. 희망농업인과 교육내용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표 1 참고).

표 1. 영농기술 교육과정

과 정 명	기 간	실시기관	대 상
□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3~4일	중앙	교육희망 농업인
□ 전문농업인 교육	2~3일	중앙	교육희망 농업인
□ 명예지도사 품목별교육	1일	도	명예지도사
□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전문교육	1~3일	도	품목별 도단위 연구회원
□ 전문경영인 교육	1일	도	전문경영인으로 선발된 자
□ 논농업직접지불제 교육	1일		직접지불제 신청 대상농가
□ 영농공개강좌	1일	도	주산지역 교육희망 농업인
□ 전문농업정보 교육	3일	도	정보화 교육 희망 농업인
□ 새해영농설계 교육	1일	시군	교육희망 농업인
□ 품목별 상설교육	1일	시군	품목별 교육희망 농업인
□ 농업정보 활용교육	3일	시군	정보화 교육희망 농업인
□ 당면과제 현장 교육	2일	시군	교육희망 농업인

2) 농업기계 교육

농업기계교육은 8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 별로 1일에서 3주까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실시기관은 농기계의 확보와 전문교육인력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교육이 도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기계교육은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희망농업인보다는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표 2 참고).

3) 생활 개선 및 청소년 교육

생활 개선 및 청소년 교육은 크게 여성농업인 및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구분된다. 특히, 농업인력의 부녀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이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 전문교육을 제외한 교육의 대상은 여성농업인이다(표 3 참고).

2. 농촌사회교육의 문제점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이 생산 및 경영기술 등에 국한된 교육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대부분이 이러한 생산 및 경영기술 등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수입증대를 위함이다. 경제적 향상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는 문화적, 사회적 만족 역시 중요

표 2 농업기계 교육과정

과 정 명	기 간	실시기관	대 상
□농업기계 전문농업인 교육	2주	중앙	교육희망 농업인
□기계화 영농사 교육	2주	도	기계화 영농 희망농업인
□선도농가 기계화영농사	3주	도	영농사 자격취득 희망농업인
□농기계 정비반	4일	도	농기계 실수요자
□여성농업인 농기계반	4일	도	농기계 실수요 여성농업인
□취농인 농기계교육	1주	도	취농인 및 귀농희망자
□농업기계 현장 이용기술 교육 (여성농기계 교육)	1일 (1일)	시군	농기계 실수요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안전운행 교육	1일	시군	기대 보유농가

자료 : 2001년 교육훈련 기본계획(경기도)

표 3. 농업기계 교육과정

과 정 명	기 간	실시기관	대 상
□농촌여성 대표지도자 교육	2일	중앙	생활개선회장단
□농촌여성 지도자교육	1~2일	도	생활개선 회원 및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1일	도	교육희망 여성농업인
□농촌여성 과제교육	1일	시군	생활개선 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1일	시군	교육희망 여성농업인
□청소년 전문교육	1일	시군	교육희망회원

자료 : 2001년 교육훈련 기본계획(경기도)

한 요인이기 때문에 특히, 농촌사회교육 측면에서 생산 및 경영기술에 편중된 교육은 단순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생활개선을 위한 교육이 일부나마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상자가 여성농업인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교육내용 역시 농촌 생활의 전반에 걸친 개선보다는 가정생활의 개선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생활개선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교육방법의 대부분이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화 기술을 발달로 인하여 여러 분야에서 인터넷 및 멀티미디어를 도입한 교육방법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집체에 의한 교육방법을 택하고 있다. 농촌의 경우 도시의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으며, 교육을 위해 시간을 투여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따라서 최근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가상대학과 같은 온라인을 통한 교육방법의 도입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다. 물론 기술 교육의 경우, 많은 비율이 직접적인 대면에 의한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기는 하지만 기초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의 경우 온라인 통해 실시하고, 그 이후에 집체 교육을 하는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교육시간의 단축과 교육의 효과를 보다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가 및 문화생활 개선 교육의 경우 주로 의식적 교육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강좌를 통한 교육의 확대에 보다 많은 농업인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주관 교육의 비중이 낮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교육 대상자의 선발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을 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상당부분이 도나 중앙에서 실시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개발 및 편성의 권한이 축소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농업인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기 쉬우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편성이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권을 부여하여 지역과 농업인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중앙 및 도 단위에서는 이러한 교육 중, 중복교육이나 보다 단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교육을 선정하여 실시하게 된다면, 농촌사회교육 역시 단계별로 심화시킬 수 있어, 농업인의 기술능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문헌연구는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실태 등은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였으며, 조사연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인식도 및 요구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2. 대상자 선정

본 연구는 경기도 양주군 소재 농업인을 모집단으로 하여 무작위 표본추출을 하여 총 25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배부된 250부 중 회수된 질문지는 243부로 회수율은 97.2%이며, 이중 통계 처리가 불가능한 13부를 제외하고 총 230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조사연구에 따른 자료는 SAS/6.08(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프로그램에 의해 전산처리 하였으며, 주요 통계방법은 빈도이다.

V. 농업인의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도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명(%)	구분		명(%)
성별	남	195(78)	학력별	국졸	82(32.8)
	여	45(22)		중졸	94(37.6)
연령별	39세 이하	13(5.2)		고졸이상	47(18.8)
	40세~49세	45(22)		전문대졸 이상	7(2.8)
	50세~59세	94(37.6)		수도작	87(34.8)
	60세 이상	98(39.2)		원예	63(25.2)
경력별	5년이하	22	작목별	과수	22(8.8)
	6~15년	12		축산	47(18.8)
	16~30년	138		기타	11(4.4)
	31년 이상	58			

성별로는 전체 응답자의 78%가 남성 농업인 이었으며, 22%가 여성농업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9.2%고 전체응답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50세~59세가 37.6%, 40세~49세는 22% 그리고 39세 이하는 5.2% 순으로 나타나 50세 이상의 연령층이 전체응답자의 6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중졸이 37.6%로 가장 많았으며 국졸이 32.8%, 고졸이 18.8%, 전문대졸 이상이 2.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별로는 수도작이 34.8%로 응답자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예가 25.2%, 축산 18.8%, 과수 8.8%, 기타 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력별은 31년 이상을 “상”으로 16~30년을 “중”으로, 5년이하와 6~15년 사이를 합하여 15년 이하로 하여 “하”로 분류하였다. 학력별은 전문대졸 이상에 소속된 인원이 적어서 고졸이상으로 통합하여, 학력은 국졸, 중졸, 고졸이상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농촌사회교육의 실태

1)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참여도

농촌사회교육을 영역별로 나누어 교육 참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영농기술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균 참여회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3.6

으로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 경력별로는 상(2.3), 중(2.2), 하(1.6)순으로 나타나 영농 경력에 따라 영농기술교육에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력이 많을수록 새로운 농업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참여회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경력이 낮은 경우 최근의 농업기술로 영농을 시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참여회수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회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기계 교육에 있어서는 영농기술과 달리 여성의 참여율이 1.6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는 농업인력이 점차 여성의 영농참여율의 증가와 관계가 있다(표 6 참조). 여성농업인 직접 농기계를 사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능과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개선교육에 있어서는 여성의 평균교육참여 회수가 3.6인 반면, 남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개선교육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내용 역시 가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

표 5. 농촌사회교육 영역별 이수회수

단위 : 평균회수

구 분	성별		경력별			학력별		
	남	여	상	중	하	국졸	중졸	고졸
영농기술교육	3.6	0.5	2.3	2.2	1.6	1.2	2.1	2.8
농기계 교육	2.3	1.6	1.7	2.3	1.8	1.9	1.8	2.1
생활 개선교육	0.0	3.6	0.8	2.8	1.8	0.2	1.8	3.4

표 6.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도

단위 : 명(%)

구 분	영농작업 참여	농사계획 결정	영농자금 결정	농산물 유통
남편이 전담	4(2.8)	9(6.2)	18(12.4)	17(11.7)
약간 참여	27(18.6)	58(40.0)	65(44.8)	47(32.4)
남편과 거의 비슷	106(73.1)	73(50.3)	58(40.0)	77(53.1)
본인이 주로	4(2.8)	4(2.8)	2(1.4)	3(2.1)
본인이 전담	4(2.8)	1(0.7)	2(1.4)	1(0.7)
계	145(100.0)	145(100.0)	145(100.0)	145(100.0)

자료: 농림수산주요통계(2000)

어 있기 때문에 남성 참여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참여동기

농촌사회교육의 영역별 참여동기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농촌사회교육 영역별 참여동기

단위 : 명(%)

구 분	영농기술 교육	농기계 교육	생활개선 교육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170(74)	172(75)	149(65)
이웃 사람의 권유	9(4)	12(5)	34(15)
공무원등의 권유에 의해	39(17)	39(17)	30(13)
기타	12(5)	7(3)	16(7)
계	230(100)	230(100)	230(100)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참여하는 비율이 전체 참여자의 65%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참여동기는 농업인 개인의 교육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농촌사회교육이 근본적으로 농민의 자발적 참여와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이 목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적극적 참여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활개선 교육에 있어서는 이웃사람이나 농업관련 공무원의 권유에 의한 참여율(28%)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때, 생활개선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기본적인 단계라는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개편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을 통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3) 농촌사회교육의 내용과 현재 영농과의 관계정도

농촌사회교육의 내용과 현재 영농과의 관계정도도 “매우 관계가 높다(5점)”에서 “관계가 전혀 없다(1점)”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교육은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교육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

표 8. 농촌사회교육의 내용과 현재 영농과의 관계정도

단위 : 평균

구 분	성별		경력별			학력별		
	남	여	상	중	하	국졸	중졸	고졸
영농기술교육	3.2	3.8	3.2	3.8	3.5	3.5	3.1	3.9
농기계 교육	4.3	3.4	3.3	4.4	3.9	3.4	3.9	4.3
생활 개선교육	0.0	2.5	0.0	2.9	0.9	0.8	2.2	0.8

적인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농기계 교육은 교육이후 바로 현장의 영농활동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참여 동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농업인은 교육선택시 영농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교육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생활개선 교육은 다른 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인은 교육이수 후 영농활동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내용만을 교육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촌생활개선 교육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이 생활속에서 직접 활용하기에는 미흡하거나 농업인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농촌사회교육의 실태에서 살펴봐왔듯이,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 교육의 경우에는 비교적 농업인의 요구와 교육내용이 일치하고 있었으며, 참여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개선교육은 여성만 참여하고 있었으며, 생활과의 관계성 정도에 있어서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생활개선교육은 농촌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함에도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교육내용 역시 여성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도시와 농촌의 평생교육 참여비율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표 9). 농촌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비율이 13.1%로 도시의 18.5%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으나 항목별로는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농촌이 5.5%로 도시의 1.4%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사회교육의 대부분이 영농기술, 농기계와 같은 직업활동에 필요

한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반면에, 농촌생활개선과 관련 있는 교양강좌와 같은 항목은 도시에 비하여 농촌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9. 도시와 농촌의 평생교육 참여비율('96)

항 목	농 촌	도 시
참여자비율	13.1	18.5
직장연수	4.8	10.2
학원수강	1.1	4.1
교양강좌	2.1	3.4
직업훈련	5.5	1.4
TV/라디오 강좌	1.7	4.4

자료: 한국통계연감(2000)

생활개선교육은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생활개선은 기초적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여성으로 한정하고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삶의 질 향상은 단순한 경제적 여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환경의 개선 역시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물질적인 문화환경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농업인 자신 스스로가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업인의 여가나 문화생활과 같은 보다 포괄적이고 자아실현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개발되어야 한다. 농촌여성의 농촌생활에서의 어

표 10. 농촌의 가정주부로서의 활동의 어려움 정도

단위: 명(%)

가정주부로서의 활동	어려움의 정도					계
	매우 어려움	어려움	그저 그렇다	쉽다	매우 쉽다	
가사노동	47(32.4)	65(44.8)	30(20.7)	3(2.1)	0(0.0)	145(100)
자녀양육	38(26.2)	68(46.9)	36(24.8)	3(2.1)	0(0.0)	145(100)
자녀교육	40(27.6)	68(46.9)	34(23.4)	3(2.1)	0(0.0)	145(100)
문화활동	54(37.2)	48(33.1)	39(26.9)	4(2.8)	0(0.0)	145(100)
사회활동	40(27.6)	51(35.2)	47(32.4)	4(2.8)	3(2.1)	145(100)

자료: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보고서, 농림부

려움의 정도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농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 단순한 육체적 노동보다는 문화 혹은 여가 생활은 부분이다.

3.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만족도

1)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우선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만족(5점)”에서 “매우 불만족(1점)”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평균

구 분	성별		경력별			학력별		
	남	여	상	중	하	국졸	중졸	고졸
영농기술교육	3.7	3.2	3.2	3.6	3.6	3.1	3.2	4.1
농기계 교육	4.2	3.9	3.8	4.3	4.1	4.3	4.2	3.9
생활 개선교육	0.0	3.4	0.0	3.7	2.4	0.4	3.6	2.1

전체적으로 농기계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4.0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영농기술교육, 생활개선 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기술교육의 경우 남녀 별로 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것을 고려할 때 여성의 경우 영농기술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하여 다소 어려운 것을 볼 수 있다. 농기계 교육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농기계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농기계 교육이 대부분 조작과 성능 습득과 같이 기계능력의 숙달이기 때문에, 학력이 높을수록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로 볼 때, 농촌사회교육 과정개발에 있어서 학습과정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학력에 따른 교육내용에 대한 적응정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할 수 있게 함으

로써 중앙과 도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을 그 지역의 농업인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2)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교육방법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전체적으로 실습을 통한 교육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으로는 강의와 질의응답의 병행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현장의 실습을 통한 교육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농업인은 실습을 통한 교육을 다른 교육방법보다 선호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특히,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 교육의 경우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습과 이론을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농업경력이 적을수록 실습에 의한 농촌사회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귀농이나 농업희망자의 교육에 있어서 실습의 비중을 보다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강의와 질의응답을 병행하는 비율을 실습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기존의 강사위주의 교육보다는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볼 때, 질의 응답의 기회를 많이 부여하는 것도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3) 교육기간에 대한 만족도

교육기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모든 교육기간에 대하여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적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농기술교육에 있어서는 적당하다(54.0%)라는 인식과 짧다(40.9%)라는 인식이 서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영농기술교육의 교육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농기술교육의 경우, 교육기간이 대체로 1~4일 정도임을 감안할 때, 교육내용에 따라 다소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군단위의 교육은 영농현장과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다소 길게 잡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농촌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도

1)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도

농촌사회교육의 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교육내용 중 1순위에서는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 1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영농기술교육(16.5%)와 농업유통·금융교육(16.0%)순서로 나타났다. 이중 농업유통·금융교육과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은 2순위와 3순위 모두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농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육은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과 농업유통·금융교육임을 알 수 있다.

표 12.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성 별		경 력 별			학 력 별		
	남	여	상	중	하	국졸	중졸	고졸이상
강사위주	21(10.7)	2(4.4)	7(12.1)	4(2.9)	1(2.9)	14(17.1)	12(12.8)	2(3.7)
질의응답	29(14.9)	6(13.3)	6(10.3)	11(8.0)	2(5.9)	5(6.1)	9(9.6)	6(11.1)
강의와 질의응답 병행	44(22.6)	8(17.8)	10(17.2)	23(16.7)	4(11.8)	4(4.9)	8(8.5)	7(13.0)
공개토론	13(6.67)	1(2.2)	4(6.9)	16(11.6)	5(14.7)	3(3.7)	3(3.2)	1(1.9)
실습	88(45.1)	28(62.2)	31(53.4)	84(60.9)	22(64.7)	56(68.3)	62(66.0)	38(70.4)
계	195(100)	45(100)	58(100)	138(100)	34(100)	82(100)	94(100)	54(100)

표 13. 교육기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 분	적당하다	짧다	길다
영농기술교육	124(54.0)	97(40.9)	9(5.1)
농기계 교육	182(79.1)	41(17.8)	7(3.1)
생활 개선교육	204(88.7)	7(3.1)	19(8.2)

표 14. 교육내용에 대한 선호도

단위 : 명(%)

구 분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농촌생활개선 교육	7(3.0)	11(4.7)	9(3.9)
영농기술 교육	38(16.5)	28(12.1)	24(10.4)
농기계 기술교육	26(11.3)	25(10.9)	28(12.1)
농업유통·금융 교육	37(16.0)	33(14.3)	34(14.8)
영농정책 교육	9(3.9)	25(10.8)	15(6.5)
농업정보 교육	33(14.3)	31(13.4)	31(13.4)
취미와 특기개발 교육	27(11.7)	28(12.1)	32(13.9)
교양과 인격 형성 교육	8(3.5)	15(6.5)	11(4.7)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	40(17.4)	32(13.9)	36(14.4)
학위취득 교육	5(2.2)	2(0.9)	10(4.3)
계	230(100)	230(100)	230(100)

농업유통·금융교육은 전문농업인 과정과 전문경영인 과정의 교육내용으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독립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 이들 내용을 하나의 독립된 과정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농기술 교육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별과 학력에 따라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성별과 학력에 따른 차별적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성농업인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도 수준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내용중앙에서는 전반적인 영농기술에 대한 이해도 중심으로 이론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도 단위에서는 이러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실습위주의 실습교육을 실시하며, 시군 단위에서는 직접 영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단계별로 점차 심화되는 교육과정의 편성을 고려해

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선호도가 낮게 나타난 농촌생활개선 교육의 경우, 전반적인 내용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과 특기 및 취미생활에 관한 교육을 농촌생활 개선 교육의 교육내용으로 편성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생활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육방법에 대한 요구

교육방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교육방법에 대한 선호도

구 분	명	%
강사위주의 교육	36	7.8
인터넷 교육	88	19.1
강의와 토론 병행	48	10.4
토론식 교육	60	13.0
실습 위주의 교육	224	48.7
기타	4	1.0
계	460	100

* 중복응답임

농업인이 선호하는 교육방법은 실습위주의 교육이 48.7%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교육이 19.1%, 토론식 교육이 13.0%, 강의와 토론 병행이 13.0%, 강사위주의 교육이 7.8%, 기타가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실습위주의 교육이 높게 나타난 것은, 영농현장에서 직접 실습을 통해 습득한 내용은 영농활동에서 적용하고 활용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농기계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모든 교육을 실습위주로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실습시간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인터넷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농활동으로

교육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많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특히 적합한 교육방법으로 볼 수 있다. 2001년 농가의 컴퓨터 보유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농업어업 종사 가구의 26.7%로 다른 업종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16. 컴퓨터 보유가구(2001)

구 분	비보유 가구(%)	보유가구 (%)	1대	2대 이상	100가구당 보유비율
전문관리	19.9	25.0	45.3	73.3	45.6
사무	80.1	75.0	54.7	26.7	54.4
서비스판매	70.3	69.9	52.4	25.8	52.3
농림어업	9.7	5.0	2.3	0.9	2.1
기능노무	91.2	80.7	57.6	27.8	57.0

자료 : 정보화 실태조사(2001). 통계청

그러나, 농촌의 인터넷 사용용도에 있어서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비율이 16.9%로, 정보획득(40.0%)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도시의 12.3%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내용 중 이론적 내용이나 정보전달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일정한 장소에서의 집합교육을 통하여 좀더 자세한 설명이나 실습을 하는 방법으로 교육과정 전체를 인터넷 교육으로 구성하기보다는 집합교육과 인터넷교육을 함께 병행하는 교육을 통해서 교육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7. 컴퓨터 보유가구(1997)

단위 : 명(%)

	정보 획득	교육	채팅	게임 오락	자료실	홈쇼핑 출방킹	전자 우편	기타
도시	47.5	12.3	11.5	7.0	15.2	1.7	4.3	0.4
농촌	40.0	16.9	11.3	13.3	11.9	2.1	4.6	0.0

VI. 농업기술센터에서의 농촌사회교육의 개선방안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농촌사회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삶의 질 향상은 단순한 경제적 수입증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환경의 개선을 통해 농업인 자신 스스로가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생활양식과 변화가 일어나가 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농촌에서의 문화생활을 들 수 있다. 문화생활은 피로회복, 휴식, 기분전환, 사회적 가치인식 및 자아의 발견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과중한 농업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취미와 특기를 개발하는 활동을 통해 생활의 활력소를 찾고, 스스로 생활의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화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양강좌 혹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들의 편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편성은 기존의 교육과정과 함께 교육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를 지니지 못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교육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개선교육 과정의 개편을 통하여, 여성뿐 아니라 남성 농업인 역시 문화생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둘째, 실습교육의 강화이다. 농촌사회교육 특히, 영농기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교육 뿐 아니라 실습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도 이러한 실습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강사위주의 강의식 교육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적 강의와 함께 실습의 비율이 보다 증대되어야 한다. 특히, 귀농 혹은 신규농업인력의 경우 이

론적 지식은 풍부하나 실제 영농에 있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실습이 중요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실습의 비율을 보다 증가시켜, 실습에 의한 기술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의 실시이다. 현재 농업 관련 정보들은 많은 DB화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습득할 수 있다. 농업인 역시 이들 정보를 습득하거나, 온라인 판매와 같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은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다. 물론 농촌의 컴퓨터 보유비율이 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농기술과 같은 면대면 학습이 필요한 교육이 현재의 농촌사회교육의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든 교육을 인터넷 교육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다. 교육과정에 따라, 특히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이나, 학위취득과정, 교양강좌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강의가 가능한 교육들이다. 또한 같은 과정의 교육에 있어서도 이론적인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실습이나 보다 심화를 위한 교육에서는 집합교육을 통하여 실시하는 즉, 하나의 과정 안에서 인터넷과 기존의 집합교육을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교육을 통해서 영농활동 이후의 시간이나 겨울과 같은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통하여 언제든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사회교육이 보다 평생교육적 기회의 제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단계별 교육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매년 대상자를 달리할 뿐 반복되거나, 다른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일정기간에 과정을 이수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정별 혹은 교육실시 기관에 따라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내용에 따

라 단시일 내에 끝날 수도 있으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는 기본적인 이론교육과 실제 적용의 예를 기준으로 교육내용을 편성하고, 하반기에는 실제 현장에서 실습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단계별 교육이 가능하다. 또한, 중앙에서의 교육은 이론위주로, 도 단위의 교육은 실습위주의 교육을, 시군 단위의 교육은 실제 영농현장에서 적용하는 교육 등과 같이 단계별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별 교육은 교육내용의 연계성과 농업인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가 될 수 있다. 또한 도나 중앙단위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서 그 지역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V. 결론

현재의 농촌은 농업인력의 부족, 부녀화 및 고령화의 문제,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등 경제적인 면 뿐 아니라, 사회, 문화, 복지 등 사회 전반의 모든 면에서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교육에 있어서는 여전히 농업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존의 목표아래, 농업기술 교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농업인의 개개인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은 소외시 되고 있다. 이러한 단편적인 기술교육에서 벗어나 농촌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농촌사회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삶의 질 향상은 단순한 경제적 수입증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자아를 실현하고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환경의 개선을 통해 농업인 자신 스스로가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생활양식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농촌사회교육 특히, 영농기술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한 내용을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적 교육 뿐만 아니라 실습을 통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과정에 따라 현재보다 실습교육의 비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농활동 이후의 시간이나 겨울과 같은 비교적 한가한 시간을 통하여 언제든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사회교육이 보다 평생교육적 기회의 제공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은 매년 대상자를 달리 할 뿐 반복되거나, 다른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사회교육은 학교교육과 달리 일정 기간에 과정을 이수하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연계성과 농업인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단계별 교육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1. 강기주(1994), 농촌지도소의 사회교육실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경기도(2001), 2001년 교육훈련 기본계획, 경기도.
3. 김경미(1991), 농촌에 있어서 여성과 사회교육, 한국농업교육학회지, Vol. 23, No. 4, 농업교육학회지.
4. 김태호(1990), 전환기 농촌사회교육의 위상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Vol. 22, No. 3, 한국농업교육학회.
5. 농림부(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연구, 미발행.
6. 서규선 외(2000), U턴 귀농자 장,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Vol. 7, No. 1, 한국농촌지도학회.
7. 서규선 외(2000), 디지털시대의 농업기술센터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한국농촌지도학회지, Vol. 7,

- No. 2, 한국농촌지도학회.
8. 신동완(1994), 지방화시대 농촌지도사업 기능에 대한 고찰, 한국농촌지도학회지, Vol. 1, No. 2, 한국농촌지도학회.
9. 윤 욱(1990), 농촌지역 사회교육의 효율화방안, 새마을 지역개발연구, Vol. 11, No. 0,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소.
10. 이영대(1994), 기존 농민을 위한 농촌사회교육 유형분석, 한국농촌지도학회지, Vol. 1, No. 1, 한국농촌지도학회.
11. 이종만 외(1998), 농촌사회교육학 : 그 정립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Vol. 30, No. 1, 한국농업교육학회.
12. 이종만(1991), 평생교육 이념하에서의 농촌사회교육 : 그 위상과 발전방향, 한국농업교육학회지, Vol. 23, No. 4, 한국농업교육학회.
13. 이종만(1995), 농촌사회교육 : 그 성격과 지향성에 대하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Vol. 27, No. 1, 한국농업교육학회.
14. 정지웅(1974), 농촌사회교육의 분석 : 경기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Vol. 12, No. 1, 한국교육학회.
15. 정지웅(1997), 농촌지도, 농촌사회교육과 지역사회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Vol. 4, No. 2, 한국농촌지도학회.
16. 정진석(1993), 산업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농촌사회교육의 과제와 전략 : 농협발전을 위한 농촌사회교육적 접근, 한국농업교육학회지, Vol. 25, No. 3, 한국농업교육학회.
17. 최만호 외(1991), 농촌사회교육학의 학문적 체계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교육학회지, Vol. 23, No. 3, 한국농업교육학회.
18. 최민호 외(1990), 농촌지도론, 서울대학 출판부.
19. 최민호 외(1997), 한국의 농촌청소년 사회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지도학회지, Vol. 4, No. 1, 한국농촌지도학회.
20. 통계청(2000), 한국의 사회 지표, 통계청.
21. 통계청(2001), 농가경제통계, 통계청.